12

자동차정비 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성별	남성	나이	39세	직종	자동차 정비 작업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약 26년간 자동차 정비업무를 하였다. 2012년 5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2016년 11월에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진단을받았다. 자동차 정비업무 중 납땜작업, 용접작업, 엔진세척작업 등을 하면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7년 12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주로 대형트럭의 전기계통 이상 점검 및 배선 수리(납땜), 엔진 세척작업을 하였으며, 전기계통 및 엔진 이상 진단, 매니저 업무(고객대응, 작업지시 등)를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작업은 별도의 공간 없이 차량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끊어진 배선을 수리하기 위해 수시로 납땜을 하였다고 진술 하였고, 엔진 세척작업은 비정기적,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대형트럭의 엔진을 탈거하고 분해해서 부품을 세척하고 재조립하는 작업이라고 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2년 5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항암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다. 2016년 4월부터 근육연축. 6월경부터 다리에 힘이 빠져서 계단오르기가 힘든 증 상이 발생해서 진료를 받은 결과, 2016년 11월에 ALS를 진단받았다. 의무기록과 건강검 진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갑년의 과거 흡연력(2012년경 금연) 외에 특이할만한 병력 이나 개인력은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39세가 되던 2012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2016년(43 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97년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대형 트럭) 정비업무 중 주로 전기장치 이상 진단 및 배선수리(납땜), 엔진 세척작 업을 수행하였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 데히드 등이 알려져 있고,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위험요인으로는 명확히 알려진 것은 없으 나, 일부 납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연구가 있다. 엔진 세척작업 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 을 가능성은 있으나, 세척유의 성분, 작업빈도 등을 고려할 때 벤젠 노출수준은 낮았을 것 이고, 대형 트럭 수리업무를 할 때 납땜 작업을 통해 납을 비롯한 유해금속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작업빈도 및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납을 비롯한 유해금속 노출수준은 역시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급성골수성백혈병과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